

츠빙글리와 멜랑흐톤, 마르부르크 회의의 양자회담을 중심으로

류성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교회사)

- I. 서론
- II. 마르부르크 회의 전반에 대한 소개
- III. 츠빙글리의 양자회담 회의록
- IV. 결론

[초록]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은 마르부르크 회의 첫날 양자회담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 본고는 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츠빙글리의 회의록과 멜랑흐톤의 보고서를 통하여 짐작해보는 시도를 한다.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주제는 말씀에 대한 이해, 원죄 문제, 기독교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찬에 대한 견해이다. 비텐베르크는 개혁파의 견해에 대하여 이단과 연결시키며 심각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둘 사이의 의견교환으로 이루어진 대화는 근본적인 교리적 문제에 상당한 접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특히 성찬의 주체에 대한 입장에서 멜랑흐톤은 루터보다 츠빙글리에 가까운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성경해석의 원리도 일치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적 임재에 대한 견해에는 일치하지 못한 채, 회담이 끝났다. 이 실패는 신학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면서도 정치적 결과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담을 통해 종교개혁의 양 진영이 신학적 큰 차이가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키워드: 츠빙글리, 멜랑흐톤, 루터, 마르부르크 회의, 성찬론, 성경해석 원리

논문투고일 2019.07.21. / 심사완료일 2019.08.26. / 게재확정일 2019.08.29.

1. 서론

2019년은 개혁신교 개혁신교 500주년으로 기념하고 있다.¹ 이미 2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였던 것을 기억하면, 과연 개혁신교의 기념과 앞서 2년 전의 기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츠빙글리는 분명 루터와 상관 없이 종교개혁적 설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종교개혁적이라는 의미는 루터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츠빙글리와 루터라는 인물을 통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종교개혁은 그들의 창작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15세기, 16세기의 교회의 양상과 학문적 사상과 정치적 상황이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고, 루터와 츠빙글리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들의 일을 시작하였을 때, 붓물 터지듯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츠빙글리로 대표되는 개혁신교 신학과 루터로 대표되는 비텐베르크 신학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1529년 마르부르크에서 열린 종교회의는 양자가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의 결과는 잘 알려진 대로 실패였다. 둘은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생각해야 할 요소들이 그 회의의 주변에는 상당히 많았다.

본고는 마르부르크 회의의 첫날 열린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양자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멜랑흐톤은 루터와 함께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을 이끈 핵심적 인물이다. 비텐베르크에는 루터 외에 멜랑흐톤이라는 독자적 신학의 체계를 가진 인물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츠빙글리와 나눈 대화를 통하여 비텐베르크 신학의 다양성의 한 측면이 개혁신교 신학과 대화를 통해 나온 결과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개혁 신학의 통일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것은 개혁신교 신학의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신교 신학의 일반적 성격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 될

1 취리히는 츠빙글리가 목회를 시작한 1519년을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기념한다. (참고. <https://www.zuerich.com/en/visit/500-years-of-reformation> 2019년4월27일)

것이다. 본고는 먼저 마르부르크 회의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진행을 소개하고, 첫날 열린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양자회담의 회의록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순서로 진행된다.

II. 마르부르크 회의 전반에 대한 소개

비텐베르크(Wittenberg) 신학자들과 고지 독일과 스위스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1529년 마르부르크(Marburg)에서 가진 회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양측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루터와 츠빙글리는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몇 년간에 지속되었던 성만찬에 대한 문서 논쟁²으로 상호 간에 갈등이 매우 고조된 상황에서 그들은 일치의 가능성을 놓고 만나게 되었고, 마르부르크 조항(die Marburger Artikel)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³ 이를 통해 종교개혁 1세대 신학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⁴ 더하여 마르부르크 회의에서 발생한 회의록들과 당사자들의 서간들은 쾰러(Walther Köhler)에 의해 수집, 정리되어 1929년 출간되었고,⁵ 마이(Gerhard

2 성만찬 논쟁의 경과에 대하여 참고. Irene Dingel, *Reformation: Zentren-Akteure-Ereigniss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6), 108-15.

3 마르부르크 조항은 루터와 츠빙글리 양자에 의해 출판된다. 루터의 것은 루터 전집(Martin Luther,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WA) Vol. 30.III. Weimar Ausgabe (Weimar: H. Bohlau, 1883-), 102-06: 160-71)에서 찾을 수 있고, 츠빙글리의 것은 츠빙글리 전집(Huldreich Zwingli, ed. Emil Egli et al., *Huldreich Zwinglis Sämtliche Werke*. Vol. 6.2.(= *Corpus Reformatorum* 93.2.) (= CR 93.2) (Zürich: Verlag Berichthaus, 1968), 514-18; 521-23; <http://www.irg.uzh.ch/static/zwingli-werke/index.php?n=Werk.146> 2019년4월24일)에서 찾을 수 있다. 마르부르크 회의의 역사적, 신학적 맥락과 조항의 번역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류성민, “마르부르크 조항 연구: 마르부르크 조항 번역과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 비교,” 『갱신과 부흥』 제22권(2018), 7-38.

4 최근의 마르부르크 조항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엮어졌다. 이 연구는 개혁자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참고. Wolf-Friedrich Schäufele ed., *Die Marburger Artikel als Zeugnis der Einheit*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2012). (= *MAalsZE*)

5 쾰러는 이 회의를 참석자들의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재구성하였다. Walther Köhler ed.,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Versuch einer Rekonstruktion* (Leipzig: M.Heinsius Nachfolger Eger & Sievers, 1929).

May)에 의해 다시 구성되어 1970년 출간되었다.⁶

마르부르크 회의가 소집되게 된 것은 성만찬 논쟁으로 인한 신학적인 동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된 동기는 1529년 슈파이어(Speyer) 제국 회의에서 결성된 “저항파”(혹은 개신교, Protestanten)의 정치적 일치치를 위한 것이었다.⁷ 헤센의 지방백작 필립(Landgraft Philipp von Hessen)은 작센의 선제후 요한(Kurfürst Johann der Beständige von Sachen), 그리고 요한의 후계자인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Kurfürst Johann Friedrich der Großmütige von Sachen)와 함께 제국의 개신교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였다. 그는 마르부르크에 성만찬 문제로 갈등 중에 있던 비텐베르크와 개혁파 신학자들을 초청하였다. 그 목적은 “저항파”가 놓인 정치적 위기 때문이었다. 구교측을 규합하는 황제로 인해 “저항파”는 전쟁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고, 필립은 가능한 제국 외부의 세력들까지 끌어들이 개신교 동맹을 맺고자 의도했다.⁸ 비텐베르크에서 요구한 동맹의 전제는 종교의 일치였고, 그 핵심에는 성만찬의 불일치가 있었다. 필립은 이 문제가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1529년 10월 1-4일 마르부르크에서 이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필립의 견해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작센은 사실상 헤센의 동맹 계획에 반대하고 있었다.⁹ 그리고 이것은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의 입지에 제한을 주었다. “루터의 경우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회의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었다. 멜랑흐톤이 회의 내내 침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그럼에도 필립은 그의 의도대로 회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의 첫날인 10월 1일 두 개의 양자회담을 진행시켰다. 그는 루터와 츠빙글리가 회의의 시작과 함께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양측의 인물들이 각 진영의 강경한 인물들과 대화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루터와

6 Gerhard May, ed.,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Gütersloh:Güt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70). 본고는 May의 모음에서 본문을 가져왔다.

7 제2차 슈파이어 제국회의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 Dingel, *Reformation*, 185-88.

8 Schäufele, “Bündnis und Bekenntnis,” in *MAalsZE*, 54f.

9 Schäufele, “Bündnis und Bekenntnis,” 55-56.

10 류성민, “마르부르크 조항 연구: 마르부르크 조항 번역과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 비교,” 12.

외콜람파디우스의 양자회담,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양자회담이 열렸다.¹¹ 그리고 다음 날 10월 2일 본회의가 시작되었고, 주제는 성만찬에 대한 것만 다루어졌다.¹² 10월 3일 오후까지의 대화는 아무 성과 없이 끝이 났다. 10월 4일 회의를 빈손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필립은 루터에게 모든 신앙조항들의 목록을 작성하기를 요구하였다. 아마 성찬에서 일치를 실패했다라도, 전체적인 신학적 입장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일종의 일치와 유사한 결과물을 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루터의 손으로 신앙고백에 준하는 조항들이 작성되었다. 놀랍게도 이 논의는 짧았고, 단지 몇가지 적은 수의 변경 사항들만 요청되었다.¹³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마르부르크 조항은 15개 조항 중 14.5개의 일치된 조항과 0.5개의 불일치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본고는 마르부르크 회의의 결과물인 마르부르크 조항이 나오기 전인, 10월 1일 처음으로 열렸던 양자회담 중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양자회담의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인다. 츠빙글리의 요약문을 기초로 하여, 멜랑흐톤의 보고서신을 참고로, 둘 사이에 오간 신학적 논의들을 다시 점검하고, 그 신학적 특징과 공통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III. 츠빙글리의 양자회담 회의록

본고는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회담에 초점을 맞춘다. 이 논의를 통해 비텐베르크와 개혁파라는 신학적 구분 자체가 그 실체에 있어 어느 정도 희미한 것이었

11 멜랑흐톤은 하인리히 공작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헤센의 지방백작 필립이 루터와 외콜람파디우스가 만나고,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이 만나 대화하도록 명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Philipp Melancthon, *Corpus Reformatorum: Philippi Melancthon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Carl Gottlieb Bretschneider and Heinrich Ernst Bindseil (Halle, Braunschweig: 1834-1860) Vol. 1(= CR 1), 1102.

12 루터는 개혁파들의 다른 신학적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외콜람파디우스와 츠빙글리는 루터의 비난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성만찬의 주제만 의논하게 되었다. Köhler,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50-52. 참고. Schäufele, "Bündnis und Bekenntnis," 50.

13 Schäufele, "Bündnis und Bekenntnis," 52.

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종교개혁 신학의 통일성을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양자회담의 회의록은 츠빙글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¹⁴ 물론 그 기록에는 회담의 모든 논의와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츠빙글리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멜랑흐톤이 선제후 요한과 공작 하인리히에게 보낸 보고서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¹⁵

츠빙글리 회의록의 내용은 세 개의 주제를 다룬다. 말씀, 원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이다. 말씀과 원죄에 대한 논의는 간략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멜랑흐톤의 보고서에서 표현되는 내용에 따르면 각 논의들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다. 멜랑흐톤은 츠빙글리를 비롯한 개혁파들의 잘못된 교리의 혐의에 대하여 의논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네 개의 오류에 대한 주제가 등장한다. 원죄, 말씀, 삼위일체, 칭의이다. 본고는 츠빙글리의 글의 순서에 따라 읽으면서, 멜랑흐톤의 보고서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말씀, 원죄, 기독교론, 성찬의 순서로 살펴보고 하겠다.

1. 말씀

츠빙글리의 첫 기록은 말씀에 대한 내용이다. 멜랑흐톤은 “말씀(verba)이 다만 가리키는 것(significare)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어 츠빙글리도 함께 동의하는 내용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도구로 칭의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씀은 물질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선포되고 이해되며, 이것이 말씀의 정신과 정수이다.”¹⁶

이 짧은 츠빙글리의 기록은 양자 회담에서 멜랑흐톤과 츠빙글리의 실재적인 논의가 무엇이었는지를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 멜랑흐톤이 선제후 요한에게 보내는 보고서의 결은 츠빙글리의 기록과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멜랑흐톤의

¹⁴ CR 93.2, 507-09.; May, 31-32.; Köhler,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41-42.

¹⁵ CR 1, 1099ff.와 CR 1, 1103f.; Köhler,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45-48.

¹⁶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Philippus concedit: Verba nihil aliud posse quam significare. Spiritum sanctum operari in nobis iustificationem mediante verbo. Verbum autem non intelligitur materialiter, sed verbum praedicatum et intellectum, hoc est: mens et medulla verbi.”

보고서에서는 말씀의 주제는 두 번째로 언급된다. 개혁파에 대한 혐의는 개혁파의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 혹은 성례를 통해 주어지지 않고, 말씀 없이, 성례 없이 주어진다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뮌처(Thomas Müntzer)의 견해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다.¹⁷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은 개혁파들이 당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농민전쟁의 주동자와 같이 신령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¹⁸

츠빙글리의 기록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것을 다루지만, 실제 논의는 말씀과 성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비텐베르크에서는 말씀과 성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말씀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씀은 기록된 성경에만 머물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한다. 말씀과 성례는 둘 다 은혜의 도구로서 이해되고, 성례 자체는 말씀에 의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는 사실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를 훼손하는 것은 곧 성례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텐베르크가 개혁파에 대하여 가진 비판이다. 멜랑흐톤이 하인리히 공작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그는 츠빙글리가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어진다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⁹ 즉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성령의 긴밀한 관계에 거리를 두는 잘못을 개혁파가 가르친다고 이해한 것이다.

성찬과 관계해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현재는 성찬에서 죄 용서의 분배의 근거로 이해한다. 즉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례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적으로 분배된다고 이해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현존은 말씀에 매인다.²⁰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성례적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온다. 그러므로

17 CR 1, 1099. "Zum Andern irren si sehr vom Predigtmat oder Wort, und vom Brauch der Sacramente. Denn sie lehren, daß der heil. Geist nicht durchs Wort oder Sacrament gegeben werde, sondern werde ohne Wort und Sacrament gegeben. Also lehrete auch Münzer, und fiel dadurch auf eigene Gedanken; wie denn folgen muß, wenn man den heil. Geist ohne Wort vermeinet zu erlangen."

18 토마스 뮌처와 농민전쟁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 Dingel, *Reformation*, 133-37.

19 CR 1, 1103. "Item, de uso verbi et sacramentorum lehren sie nicht, daß Wort und Sacrament instituiert, daß dadurch der heil. Geist gegeben werde. Derhalben ministerum verbi et sacramentorum in ecclesia leichtlich fallen möchten."

성례는 은혜의 도구이자, 은혜이다. 그 안에 죄 용서가 있기 때문이다.²¹ 이것을 성령의 일하심과 관련하여 이해하면, 선행되는 말씀이 없이 성령은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²²

이에 반하여 츙빙글리는 성령이 말씀에 선행한다고 확신한다. 츙빙글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믿음을 만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그는 복음의 개념을 모든 외적 선포로 이해한다. 또한 그는 분명히 외적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스스로 믿음을 주신다”고 이해한다.²³ 츙빙글리에게 성령은 말씀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서 루터와 말씀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차이를 단편적으로 볼 때, 츙빙글리의 입장이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신령주의적 성향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비텐베르크에서 우려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츙빙글리에게 말씀과 성령은 결코 나뉘지지 않는다.²⁴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양자회담의 첫 주제가 말씀이었다면, 멜랑흐톤이 개혁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츙빙글리가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츙빙글리의 회의록에 표현된 멜랑흐톤의 입장은 거짓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츙빙글리의 회의록에는 이견 없이 멜랑흐톤의 동의를 보여줄 뿐이기 때문이다.

20 Ralph Walter Quere, *Melanchthon's Christum cognoscere: Christ's efficacious presence in the Eucharistic Theology of Melanchthon*, Bibliotheca Humanistica & Reformatorica vol. XXII (Nieuwkoop: B. De Graaf, 1977), 159.

21 루터의 소요리 문답을 참고하라. Irene Dingel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Vollständige Neuedit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BSLK), 890. (BSLK 520) “Wie kan leiblich essen und tricken solche grosse ding thun? Antwort: ‘Essen und trincken thuts freylich nicht, sondern die wort, so da stehen: “Für euch gegeben und vergossen zur vergebung der Sünden.” Welche wort sind neben dem leiblichen essen und trincken als das Heuptstück im Sacrament: und wer denselbigen worten gleubet, der hat, was sie sagen und wie sie lauten. Nemlich, vergebung der Sünden.’”

22 Martin Sallmann, “Glaube als Geschenk. Predigt und Taufe (Marburger Artikel 8-9, 14) oder: Die Zuordnung von Wort und Geist als Dreh- und Angelpunkt der Marburger Artikel,” in *MAalsZE*, 119.

23 류성민, “마부르크 조항 연구: 마르부르크 조항 번역과 루터와 츙빙글리의 견해 비교,” 22. *참고 CR* 93.2, 522, 16.

24 Sallmann, “Glaube als Geschenk,” 120.

바로 이 점에서 멜랑흐톤의 말씀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멜랑흐톤은 믿음이 칭의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사람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방식으로 칭의가 시작된다고 가르친다. 칭의의 행위에 있어 말씀과 성례와 믿음 사이에 매우 긴밀한 영향이 있다. 그러나 칭의는 말씀에서 나오는 성례의 유익이 자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²⁵ 달리 표현하면 죄용서를 받는 것은 성례의 유익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칭의된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약속된 죄 용서를 붙잡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다.²⁶ 여기에서 멜랑흐톤은 루터와 말씀과 성례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다름이 드러난다.²⁷

츠빙글리가 회의록에 기록한 바와 같이, 멜랑흐톤이 말씀을 은혜와 일치시키거나, 말씀이 칭의와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가리키는 것(significare)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멜랑흐톤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가리킨다”(상징한다, significare)는 용어가 성찬 논쟁에 있어 그리스도의 현재에 대한 해석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 멜랑흐톤이 츠빙글리에게 동의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구원과 관련하여, 그리고 성례와 관련하여 말씀이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으로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25 Quere, *Melanchthon's Christum cognoscere*, 115.

26 Quere, *Melanchthon's Christum cognoscere*, 129.

27 멜랑흐톤의 성례에 대한 입장이 루터와 초기부터 달랐다는 사실은 멜랑흐톤의 성찬 교리의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물론 그 사실이 멜랑흐톤이 개혁파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고. Quere, *Melanchthon's Christum cognoscere*.; Wilhelm H. Neuser, *Die Abendmahlslehre Melanchthons in ihr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1519-1530)* (Neukirche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68). Gäbler는 외콜람파디우스와 멜랑흐톤의 차이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멜랑흐톤이 선포되는 복음에 능력이 있어 의를 가져온다고 생각했고, 외콜람파디우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가리킬 뿐, 구원 자체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기록한다.(Ulrich Gäbler, “Melanchthon und die Schweiz,” in *Der Theologe Melanchthon*, ed., Günter Frank (Stuttgart: Thorbecke, 2000), 239.) 그러나 츠빙글리의 회의록과 Quere의 분석을 통해 볼 때, Gäbler가 말한 멜랑흐톤의 견해는 멜랑흐톤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루터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해한다는 견해는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원죄

츠빙글리의 회의록의 두 번째 주제는 원죄이다. 츠빙글리의 동의로 시작한다. “원죄는 질병이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짓는다. 이 질병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되었다.”²⁸ 원죄의 문제는 유아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유아들에게 법은 없지만, 그러한 악이나 죄를 정죄하는 법의 처벌이 있다.”²⁹ 회의록에는 이어 멜랑흐톤의 동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바로 다음 주제로 이어간다. 회담 중에 멜랑흐톤은 원죄에 대한 츠빙글리의 입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츠빙글리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멜랑흐톤은 반박이나 추가적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이해된다.

멜랑흐톤이 선제후 요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의하면, 원죄의 문제도 상호 대화에 있어 심각한 문제였다. 원죄의 문제는 보고서에서는 첫 문제로 언급된다. 비텐베르크가 가지고 있던 개혁파에 대한 의심이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파가 원죄를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죄는 단지 외적인 것이고, 악한 행위일 뿐이다. 셋째, 마음에 타고난 불결과 욕망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츠빙글리가 죄를 오직 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가 바른 기독교의 기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이 오류는 펠라기우스파와 교황과 철학자들의 오류와 같은 것이다.³⁰

²⁸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Peccatum originale morbum esse credimus, quem omnes, qui ex Adam generantur, contrahunt: quo morbo fit, ut nos ante omnia amplectamur, non Deum.”

²⁹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Ubi non est lex, ibi non est praevaricatio”

³⁰ CR 1, 1099. “Als nämlich, daß Zwinglius geschrieben, daß keine Erbsünde sey, und lehret, Sünde sey allein äußerliche böse Werke und Thaten, und meinets Herzens angeborne Unreinigkeit und Lüste. Item, daß wir von Natur Gott nicht fürchten, nicht glauben, sey nicht Sünde. Dieß ist eine große Anzeigung, daß Zwinglius nicht viel von rechter christlicher heiligkeit wisse, dieweil er Sünde allein in äußerliche

원죄의 교리는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비텐베르크에서 츠빙글리의 죄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이단과 유사하다고 여겼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고, 또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마 츠빙글리가 윤리적 개선을 중요시한다는 것과 그가 에라스무스를 좋아했다는 점에서 이런 견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³¹ 에라스무스와 루터 사이의 자유의지 논쟁으로 생긴 에라스무스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에라스무스를 선호하는 츠빙글리에 대한 선입견과 호불호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³²

멜랑흐톤이 선제후 요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네 번째 문제인 칭의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비텐베르크는 개혁파의 칭의교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혁파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되는데 있어 믿음의 교리가 충분하지 않고, 믿음에 따르는 행위(Werke)가 바로 그 의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³³ 이런 혐의는 앞서 언급한대로 개혁파의 윤리적인 강조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멜랑흐톤은 츠빙글리에게 원죄에 대한 문제를 직접 물으면서, 이단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이기 때문에 언급되었다. 또한 모든 교황들은 로마 가톨릭이 원죄 교리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과 함께 철학자들이 언급되었는데, 스콜라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과 스콜라 철학자들의 원죄에 대한 입장을 비텐베르크는 펠라기안주의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반펠라기안주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단을 언급하며 개혁파를 공격하는 비텐베르크의 태도는 츠빙글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확실한 답변을 할 것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Thaten setzt, wie die Pelagiani, alle Papisten und Philosophi.”

31 츠빙글리의 에라스무스에 대한 입장은 참고. Ulrich Gäbler, 박종숙 역 『쯔빙글리 그의 생애와 사역』 (서울: 아가페, 1993), 51-52.

32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자유의지 논쟁에 대하여 간략한 개괄은 다음을 참고. Dingel, *Reformation*, 105-08.

33 CR 1, 1099. “Zum Vierten reden si und schreiben unschicklich davon, wie der Mensch vor Gott gerecht geschätzt werde, und treiben die Lehre vom Glauben nicht genugsam, sondern reden also davon, als wären die Werk, so dem Glauben folgen, dieselbige Gerechtigkeit.”

츠빙글리는 비텐베르크가 가진 자신을 향한 혐의에 그들이 만족한 만한 답을 주었다. 그는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죄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다. 특히 원죄 문제는 유아들의 범죄와 정죄와 관련되어 중요한 사항이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아들의 범죄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원죄 교리에 대한 시금석이 될만한 유아의 죄와 형벌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츠빙글리가 이런 진술을 통하여 유아도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진 죄인이며, 처벌을 앞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이를 통해 원죄를 부인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 가장 분명한 답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범죄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제기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한 것이다. 유아에게 자범죄는 없지만, 유아가 죄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츠빙글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죄를 가진 사람이 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로써 불신이 죄의 결과일 뿐 아니라,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범죄임을 시인하고 있다. 단지 죄의 문제가 외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오히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츠빙글리는 비텐베르크가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이 정통교리 위에 있고, 비텐베르크와 일치함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비텐베르크의 혐의를 다 벗어버린다.³⁴

원죄와 칭의에 대한 비텐베르크의 문제제기와 츠빙글리의 답은 마르부르크 회의의 결과물인 마르부르크 4-7항에서 결과물로서 나온다. 죄와 칭의는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고, 이 내용들에 있어 비텐베르크와 개혁파 신학자들은 단 한 번의 반대가 없었다.³⁵ “종교개혁 신학의 다양한 입장들은 이 주제에 있어 성찬의 이견을 넘어 연결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로마 가톨릭과 근본적으로 구분되고 있었다.”³⁶

34 물론 원죄 문제만 지금 제기되었기 때문에, 윤리적 선의 문제와 사람의 본성적 능력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회담은 상호 이견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지, 전체적 신학 체계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시간은 아니었다.

35 André Birmelé, “Das reformatorische Evangelium. Sünde und Rechtfertigung (Marburger Artikel 4-7),” in *MAalsZE*, 103.; 류성민, “마부르크 조항 연구: 마르부르크 조항 번역과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 비교,” 20.

3. 기록론

츠빙글리의 회의록에서 등장하지 않으나 멜랑흐톤의 보고서에는 언급되는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문제와 삼위일체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원인이 비록 성찬에 대한 견해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비텐베르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별히 이 주제는 츠빙글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스트라스부르(Straßburg)와 관계된 의혹이었다. 멜랑흐톤은 선제후 요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이들이 유대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 견해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⁷

양자 회담이 이루어진 다음 날 10월 2일 공식 회담이 시작되었는데, 루터는 스트라스부르의 신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회담의 주제로 선정하기를 요구하였다. 비록 츠빙글리와 외콜람파디우스가 이에 반대하여 회의의 논의 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10월 3일 오후 스트라스부르의 대표(마틴 부췌)는 발언권을 얻어 이 의혹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해야 했다.³⁸

멜랑흐톤이 하인리히 공작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는 츠빙글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대하여 대답한 것이 언급된다.³⁹ 재세례파 이단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이었다. 결론은 츠빙글리가 그런 이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멜랑흐톤은 츠빙글리가 니케아 신경(아마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여겼다.⁴⁰

36 류성민, “마부르크 조항 연구: 마르부르크 조항 번역과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 비교,” 21.

37 CR 1, 1099. “Zum Dritten sind Reden erschollen von denen von Straßburg, daß sie nicht recht halten von der heiligen Dreifaltigkeit, davon wir auch ihre Meinung begehret zu wissen. Denn wir haben vernommen, daß etliche unter ihnen von der Gottheit reden wie Juden, als sollte Christus nicht natürlicher Gott seyn.”

38 류성민, “마부르크 조항 연구: 마르부르크 조항 번역과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 비교,” 13-14.

39 CR 1, 1103. “Darauf Zwinglin geantwortet: erstlich von der Gottheit Christi, daß er allezeit gehalten und noch halte, daß er auch sonst halte de trinitate, wie Synodus Nicæna gelehret. Es gehe ihn aber nichts an, daß etliche droben im Lande gewesen, von denen ungeschickliche Reden gehört. Zeigt auch an, daß Ketzter, ein Widertäufer, der zu Kostnitz gerichtet, contra divinitatem Christi ein Buch geschreiben habe, welches er Zwinglin, verhalten, daß es nicht ans Licht kommen.”

40 마르부르크 조항 1항에서 삼위일체와 관련된 진술이 나오고, 여기에도 니케아 공의회가 언급된

그러나 이 문제가 근본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 성찬 논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다만 그들은 고대 교회의 고백대로,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 이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뿐이다.⁴¹ 성자의 인성에 대한 논의는 성찬 문제에서 더 다루어져야 한다.

4. 성찬

츠빙글리의 회의록의 세 번째 주제는 성찬이다. 비록 멜랑흐톤이 성찬 논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텐베르크의 신학자들과 개혁파 사이의 성찬 논쟁은 마르부르크 회의가 소집된 주요 근거가 된다.⁴² 실제로 마르부르크 회의 내내 성찬에 대한 주제만 다루어졌다.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양자회담에서 둘은 서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날부터 이루어진 전체 회의에서 양자회담의 회의록에 언급된 주제들이 다시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멜랑흐톤이 공작 하인리히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는 첫날의 양자회담의 내용 중 츠빙글리와 나눈 성례에 대한 논의가 짧게 언급되어 있다.⁴³ 반면 선제후 요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는 첫날 양자회담에서 츠빙글리에게 제기한 네 가지 문제가 언급되는데, 여기에는 아예 성찬 문제가 없다. 그 문제들 이후에 전체 회의에서 다루어진 성찬에 대한 개혁파와 루터파의 대결을 언급할 뿐이다. 양자회담에서 그 주제가 다루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양자회담을 언급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루터가 본 회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멜랑흐톤과 상호 논의가 잘 안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루터가 회의의 성공적 결과에

다. 니케아 공의회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공의회를 통해 나온 신조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영원한 출생,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버지와 동일한 성령의 신성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 (Peter Gemeinhardt, "Das Erbe der Alten Kirche," in *MAalsZE*, 85.)

41 신론과 기독교론에 대한 마르부르크 조항인 1-2항과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석은 참고. 류성민, "마르부르크 조항 연구: 마르부르크 조항 번역과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 비교," 17-19.

42 성찬 논쟁의 진행에 대하여 참고. Dingel, *Reformation*, 108-15.

43 *CR* 1, 1103. "Item, vom heil. Sacrament des Leibes und Blutes Christi hätte er unrecht geschrieben, daß Leib und Blut Christi nicht wahrhaftig im Sacrament seyen."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반복하여 같은 문제를 제기함으로 자신이 가진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양자회담은 다음 날 개최된 전체 회의의 논지들을 축소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들은 츠빙글리의 회의록을 통해 남겨졌다.

(1) 영적으로 먹는다

츠빙글리의 회의록은 성찬의 성례에 대한 주제에서 영적으로 먹는 것으로 시작한다.⁴⁴ 멜랑흐톤은 성찬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거룩한 성례”(heil. Sacrament des Leibes und Blutes Christi)⁴⁵라고 표현하다. 즉 비텐베르크의 입장에서 성찬에 대한 논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반면 츠빙글리를 비롯한 개혁파의 입장에서 성찬의 영적 의미가 중요했다. 상호간에 중점이 있어 차이가 있었지만, 츠빙글리의 회의록은 상호간의 일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 것에는 츠빙글리와 멜랑흐톤 모두 동의한다. 일단 두 사람은 진짜 육적으로 먹는 것, 즉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 교리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화체설은 사제의 축성에 의해 성찬의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질이 변화한다는 교리이다. 화체설을 따른다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시는 제사로 이해되고, 이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은혜가 나눠지는 현상이 된다. 비텐베르크와 개혁파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진짜 육적으로 먹는 것을 반대했다. 무엇보다 성찬에서 사제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반복적으로 죽는다는 견해에 반대하였다. 비텐베르크와 개혁파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모든 은혜를 다 이루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찬에서 육적인 것을 넘어선 영적인 특별한 누림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것을 영적으로 먹는다를 표현에 담았다.

그러나 영적으로 먹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양측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

44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De sacramento eucharistiae: De spirituali manducatione on dissentimus, nempe quod manducare sit credere.”

45 CR 1, 1103.

다. 루터의 경우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현상이라고 이해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모든 은혜를 다 완성 하셨지만, 그것이 나뉘지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성찬의 주체는 그리스도이다. 반면 츠빙글리에게 성찬은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의 주체는 교회이다. 멜랑흐톤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견해는 루터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루터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멜랑흐톤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었다. 먹는 것을 통해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확신과 믿음의 강화라는 유익이 멜랑흐톤에게 초점이었다.⁴⁶ 즉 멜랑흐톤에게 성찬은 교회의 행위로 이해되었다. 성찬의 주체라는 주제에 있어서 츠빙글리는 멜랑흐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부르크 회의의 성찬 문제의 초점은 성찬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이었다.

(2) 성경 해석

멜랑흐톤과 츠빙글리의 양자회담에서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성경이었다. 멜랑흐톤은 가장 권위있는 교부인 어거스틴이라도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자신은 어거스틴에게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하였다.⁴⁷ 개혁자들의 유일하고 확실한 권위는 성경이었다. 성경의 권위 문제에 있어 두 개혁자들은 전혀 차이가 없었다. 츠빙글리의 회의록에서 성찬 논의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요한복음 6:63의 해석과 대응을 보고, 이어 마태복음 26:26의 해석과 대응을 살펴보겠다.

1)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⁴⁸

⁴⁶ Quere, *Melanchthon's Christum cognoscere*, 95. 퀴에레는 1521년 Loci의 분석을 근거로 이같은 결론을 내린다. 비텐베르크 내에서 성찬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발견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⁴⁷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Etiamsi diceret Augustinus, corpus Christi in uno loco esse oporteret], non concederet Philippus."

⁴⁸ 성경번역은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였다.

요한복음 6장은 개혁파 신학자들의 성찬에 대한 견해를 주장할 때에 주로 언급되는 구절이다. 다음날 전체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이며, 멜랑흐톤이 선제후 요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도 개혁파의 견해로 소개되고, 루터가 반박한 것으로 기록된다. 양자회담에서 아마 츠빙글리가 멜랑흐톤에게 요 6:63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멜랑흐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유대인들이 오해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집어삼키고 이로 물어뜯어야 한다고 이해했다.⁴⁹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 먹어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이해는 잘못된 것이었다.⁵⁰ 이런 이유에서 멜랑흐톤은 “육은 무익하다는” 견해에 동의한다.⁵¹ 즉 씹어 먹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멜랑흐톤의 견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숨겨진 방식(*abscondito modo*)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임시로 몸을 주셨다고 주장함으로 그가 루터의 편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⁵²

멜랑흐톤의 견해를 성찬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성찬에서 축성의 말씀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주장하는 것, 즉 화체설은 유대인들의 이해와 같은 것이다. 즉 로마 가톨릭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이 가졌던 오류에 빠진 것이다.

마르부르크 15항은 비텐베르크와 개혁파의 이견이 존재했던 성만찬 교리를 다루고 있다. “몸과 피를 영적으로 누리는 것”을 언급한다.⁵³ 개혁파는 당연히 영적으로 먹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루터는 “몸과 피를 먹어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했다. 루터는 씹고 삼키는 것은 진짜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유익인 확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겼다.⁵⁴

49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Judeos intellexisse, quod deberent eum devorare et dentibus dilaniare.”

50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Christus intellexeret errorem illorum, quo carnalem dilaniationem capiebant.”

51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Concedit:)Caro non prodest quicquam(”, dilaniata corporaliter sicut Judaei intelligebant.”

52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Philippus dixit iterum: Non ingerebat se ori discipulorum circumscriptive, sicut dilaniationem judaei intelligebant, et tamen dabat interim corpus ad manducandum abscondito modo.”

53 류성민, “마부르크 조항 연구: 마르부르크 조항 번역과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 비교,” 28.

멜랑흐톤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견해에 있어 루터의 편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양자회담을 통해 볼 때, 그는 입으로 씹고 삼키는 표현에 대해 꺼려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입장에서 그는 루터보다는 개혁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성향은 사실 신학적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자라난 학문적 철학적 배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츠빙글리는 옛 방식(via antiqua), 즉 실재론으로 학문의 길을 걸어왔다.⁵⁵ 츠빙글리와 함께 개혁파를 대표하던 외콜람파디우스(Johannes Oekolampadius)도 실재론으로 공부를 했다.⁵⁶ 루터는 반대로 새 방식(via moderna), 즉 유명론으로 학문의 길을 걸어왔다.⁵⁷ 반면 멜랑흐톤은 하이델베르크와 튀빙엔에서 옛 방식으로 자신의 학업을 진행했다.⁵⁸ 실제(reale)라는 용어는 실재론-유명론의 구분에서 전문적인 용어인데,⁵⁹ 실재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당연히 실재론적 느낌을 가지게 되고, 화체설과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씹고 삼키’는 표현은 그들에게 결코 기꺼운 것이 아니었다. 반면 유명론의 입장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멜랑흐톤은 자신이 어렸을 때 배웠던 학문적 입장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씹고 먹는 것’의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려웠다.

멜랑흐톤이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의 증거는 그가 루터의 ‘빵 안에’(in pane)라는 표현을 어려워했다는 것에서 발견될 수 있다. 멜랑흐톤은 이미 1527년 9월말 이전에 작성된 ‘시찰자 교육’(Articuli de quibus egerunt per visitatores

54 Athina Lexutt, “Das Abendmahl. Die lutherische Position (Marburger Artikel 15),” in *MAalsZE*, 160.

55 Gäbler, 『쯔빙글리 그의 생애와 사역』, 38-39.

56 Ulrich Gäbler, Art. Oekolampad, in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TRE)* 25, 30.

57 Herman Selderhuis, 신호섭 옮김, 『루터. 루터를 말하다』 (서울: 세움북스, 2016), 52.

58 당시 튀빙엔은 두 방식 모두 가능한 대학이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옛 방식으로 학문을 해왔던 멜랑흐톤은 튀빙엔에서도 실재론자 기숙사에 머물게 되었고, 이것은 튀빙엔에서 자신의 학문적 방식을 표명한 것이었다. Scheible에 따르면 그가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열심히 공부한 후에는 결국 옛 방식을 버리고 유명론을 선택하였고, 평생 머물게 되었다. (참고. Heinz Scheible, *Melanchthon. Vermittler der Reformation: Eine Biographie*, 2.Aufl. (München: C.H.Beck, 2016), 24) 그가 유명론으로 후에 전환했다고 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실재론의 경향과 느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59 Quere, *Melanchthon's Christum cognoscere*, 179.

in regione saxoniae)의 라틴어판에서 ‘빵 안에’라는 표현을 ‘빵과 함께’(cum pane)로 변경하였다.⁶⁰ 물론 ‘빵과 함께’라는 표현을 고정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다. 1530년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 다시 ‘빵 안에’를 사용한다. 다만 멜랑흐톤에게 그리스도의 실재가 문제가 아니라 실재의 방식이 문제였고, 빵과 그리스도의 몸이 혼합되는 것을 그는 선호하지 않았다.⁶¹

멜랑흐톤은 자신이 루터의 표현에 불편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필요하고, 이는 ‘숨겨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를 먹기는 먹지만, 그 방식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멜랑흐톤에게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었지만,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신비로운 것이었다. 이것은 성례에서 믿음의 신비(mysterium fidei)가 발생한다는 루터의 견해와 일치한다.⁶²

츠빙글리는 반면 멜랑흐톤이 언급한 ‘숨겨진 방식’이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⁶³ 츙빙글리가 보기에 멜랑흐톤의 성경이해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씹고 먹는 것’에는 부정적이면서, 성찬의 실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먹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 멜랑흐톤이 이런 내용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츙빙글리는 그 근거가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의 증언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박한 것이다.

그러자 멜랑흐톤은 분명하고 명확한 성경의 선언이 있다며, 마태복음 26:26을 언급한다. 멜랑흐톤은 단지 권위있는 한 개인(루터)의 사상에 의존하여 성경의 의미를 곡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견해는 희미한 본문에 대한 이성적 판단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성경의 선언이 앞서 있어야 한다는 성경해석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마 26:26은 분명하고 명확한 성경의 선언이었다.

60 CR 26, 19. “iuxta verbum Christi esse cum pane verum corpus Christi, cum calice verum sanguinem, quia Dominus ita vocavit.”

61 Quere, *Melanchthon's Christum cognoscere*, 196.

62 Lexutt, “Das Abendmahl,” 159.

63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Zuinglius negat istum absconditum modum probari ex scripturis.”

2) 마태복음 26장 26절(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제 성만찬에서 유명한 “이것은 내 몸이니라”(Hoc est corpus meum)는 구절이 등장한다. 멜랑흐톤은 회담의 논의가 성경의 적절함에서 출발해야지, 성경의 분명한 증거 없이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⁶⁴ 그는 마 26:26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현재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구절이라 여겼다. 멜랑흐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으니, 그 방식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에 근거하여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현재에 대한 논의는 이해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이 말씀의 이해에 있어 멜랑흐톤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비텐베르크의 성경해석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는 이유였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한 장소에 있지,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멜랑흐톤은 츠빙글리의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⁶⁵ 그저 멜랑흐톤은 마 26:26과 엡 4:10(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을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다. 멜랑흐톤은 엡 4:10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의 의미를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능성과 연결시켰다. 멜랑흐톤은 자신이 비록 츠빙글리의 성찬에 대한 견해에 찬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이 맞다는 그들의 주장을 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⁶⁶ 앞서 요 6:63의 이해를 통해서 성찬이 영적으로 먹는 것이라는 점이 츠빙글리와 일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에 임재하는 것은 옳다는 것이 멜랑흐톤의 확신이었다.

64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1. “Philippus probat: Hoc est corpus meum, quia non debeamus discedere sine evidenti testimonio scripturae a proprietate verborum.”

65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2. “Philippus prorsus non concedit corpus Christi in uno loco esse oportere, ita ut non simul etiam alibi esse possit.”

66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2. “Et etiamsi probaret sententiam Zuinglii de sacramento, tamen ait se negaturum esse quod adfirmant, oportere corpus Christi in uno loco esse.”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회답에서 성찬 논의의 핵심 문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에 있는가에 대한 확신의 문제였다. 이것은 동시에 말씀의 이해와 해석의 문제였다. 츠빙글리는 요 6:63의 영적 누림이 가장 확실한 것이었고, 이를 기초로 마 26:26의 'est'는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멜랑흐톤은 마 26:26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것이었고, 이를 기초로 요 6:63의 영적 누림을 인정하더라도, 'est'의 의미는 그래도 남아있다. 그리고 멜랑흐톤은 자신의 이 해석은 이성의 이해보다 뛰어난 성경의 분명한 진술이라 믿었다.⁶⁷

그러나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 주장한다. 엡 4:10의 '만물을 충만하게 한 것은 멜랑흐톤의 이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만물들이 그에게서 세워졌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츠빙글리는 히 2:17과 4:15의 말씀을, "범사에 죄를 빼고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인용하며,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것과 유사하니, 그의 인성은 유한하다고 주장하였다.⁶⁸ 아마 이와 관련된 논의가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등등(etc.)으로 처리된 짧은 문구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결국 양자회답은 식사로 인해 잠깐의 휴식기를 갖는다.⁶⁹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성경해석 원리는 사실 일치하고 있다. 가장 확실한 말씀에 기초하여 좀 더 희미한 말씀들을 해석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해석 결과도 달라진 것이다.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성경 이해의 차이는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해석 원리에는 일치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67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2. "Quia nullo modo potest ratio intelligere sive statuere, quomodo corpus Christi sit in loco."

68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2, "Et quod »per omnia fratribus simillimus est praeter peccatum«, quod ad humanam naturam pertinet: haec nostra natura finita est, Christi humanitas nostrae similis est, ergo finita est etc."

69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2. "Alia, quae utrimque iactari inciebant, interrubpta sunt mensae pricipis adoratione."

확실하고 분명한 해석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이 교회의 성경해석 전통이다. 다만 개혁자들은 중세 교황들의 해석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교황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고대 교부들을 많이 읽고, 그들의 권위를 사용하여 성경의 이해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

(3) 교부와 성경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한 장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거스틴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⁷⁰ 멜랑흐톤은 어거스틴의 권위를 인정하지만,⁷¹ 성찬의 임재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주장들이 츠빙글리의 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루터의 편에 있다고 주장한다.⁷² 멜랑흐톤은 아마도 암브로스(Ambrosius)의 전통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⁷³ 결국 교부들도 이 견해에 있어서는 갈라진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츠빙글리는 다시 성경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간다. 그는 요 13:33, 마 24:23, 요 16:28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떠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⁷⁴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품과 관계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이 세상에 부재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멜랑흐톤과 이 부분은 일치를 이룰 수 없었다.

성경에 대한 이해 원리에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가장 기초되는 이해가 무엇인가라는, 자신이 위치한 해석 전통 때문이었다.

⁷⁰ Augustin, tract. in Ioh, 30,1. (PL 35,1632; CChr 36,289)

⁷¹ Scheible, *Melanchthon*, 169.

⁷²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2. “Pleraeque sententiae, quae ex Augustino citantur, plus videntur patrocinari Zuinglio, sed alii fere omnes ex veteribus manifeste suffragantur sententiae Luteri.”

⁷³ Quere, *Melanchthon's Christum cognoscere*, 11.

⁷⁴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2. “iam dicimus impossibile esse regulariter, ut sit i[n] mundo corporaliter. Nequit enim mentiri. Deus ve[r]ax est.”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은 성찬에 있어 좀 더 중세에 가까운 해석 전통 위에서 성경을 이해하려 했고, 개혁파는 어거스틴에 가까운 전통에서 이해하려 했다. 결국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는 교부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있었다. 외콜람파디우스가 멜랑흐톤을 교부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설득하려 시도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5. 회담의 결론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은 양자회담의 결론을 작성한다. “말씀은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로 이해된다. 그 목적은 사람의 말로 쓰여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다. 그때 신적 의도의 목적을 아버지께 의해 이끌린 사람의 마음은 이해한다.”⁷⁵ 양자회담의 결론은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원리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성경이 사람의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이끌린 사람만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성경의 해석 원리에 동감하지만, 서로의 다른 이해와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10월 1일 츙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양자회담은 끝이 난다.

IV. 결론

멜랑흐톤의 보고서는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멜랑흐톤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언급한대로 마르부르크 회의가 정치적인 회의였고, 신학적 논의의 결과가 정치적인 동맹의 결과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신학적 논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했다. 이미 정치 지도자들이

⁷⁵ May,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32. “Verbum capitur pro ipsa sententia et mente Dei, quae mens est et v[ol]untas Dei, amicta tamen humanis verbis. Quam sententiam d[iv]inae voluntatis tunc capit humanum pectus, quum trahitur a p[at]re.”

동맹 계획에 부정적이었고, 멜랑흐톤 개인도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동맹 계획에 부정적이었다. 멜랑흐톤의 이런 태도는 부써(Martin Bucer)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부써는 그의 서신에서 루터가 츠빙글리를 형제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멜랑흐톤이 황제 칼 5세와 그의 형제 페르디난트에게 호의를 구하기 위해 루터를 설득했다고 의심했다.⁷⁶

그래서 멜랑흐톤은 츠빙글리와 회의 양자회담 가운데 생겨났는지 모르는 츠빙글리와 개혁파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들, 공감들을 기꺼이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하여 자신의 입장과 개혁파의 입장 사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 오히려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멜랑흐톤은 사실상 성찬에 대한 견해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성찬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재를 인정해야한다는 루터에게 찬동하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멜랑흐톤과 루터의 성찬 견해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를 감안하면, 특별히 츠빙글리와 멜랑흐톤의 성찬의 주체, 영적으로 먹는 것의 이해, 성경해석 원리의 공감 등을 생각해볼 때, 비텐베르크와 개혁파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더하여 회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한 개혁파측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외콜람파디우스와 멜랑흐톤은 튀빙엔 시절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외콜람파디우스는 멜랑흐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 회의 이전에도 그랬지만, 회의 이후에도 교부들의 입장에 대한 공개 서한을 통해 멜랑흐톤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노력은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과를 얻게 되었다.⁷⁷ 그러나 마르부르크 회의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마르부르크 회의에서 비텐베르크와 개혁파는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그대로 유지하며, 불완전하며

76 Köhler,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39. "coepit princeps urgere Lutherum et suos, ut nos fratres agnoscerent, sicut nos agnoscimus illos, sed ... frustra. Lutherum autem semel consensisse, sed mox a Philippo retractum. Philippus bene vult Caesari et Ferdinand. Utinam vidisses, quem eandem, quem simplicitatem, quam veritatem Christianissimi exhibuerint urique!", Quere, *Melanchthon's Christum cognoscere*, 218.

77 멜랑흐톤의 신학적 발전에 있어, 특별히 교부의 해석에 있어 외콜람파디우스는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Quere, *Melanchthon's Christum cognoscere*, 310-39.

실패한 것으로 끝을 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일치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내기 어려운 회의였고, 오히려 회의를 통해 종교개혁의 양 진영에 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다만 역사는 내용이 아니라 결과를 볼 뿐이다.

[참고문헌]

- Birmelé, André. “Das reformatorische Evangelium. Sünde und Rechtfertigung (Marburger Artikel 4-7).” In Schäufele, Wolf-Friedrich ed. *Die Marburger Artikel als Zeugnis der Einheit*.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2012 (= *MAalsZE*): 103-111.
- Dingel, Irene. *Reformation: Zentren-Akteure-Ereigniss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6.
- _____.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Vollständige Neuedit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 *BSLK*)
- Gäbler, Ulrich. 박종숙 역. 『쯔빙글리 그의 생애와 사역』. 서울: 아가페, 1993.
- _____. *Art. Oekolampad*. In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TRE)* 25, 29-36.
- _____. “Melancthon und die Schweiz.” In Frank, ed. Günter. *Der Theologe Melancthon*. Stuttgart: Thorbecke, 2000, 227-242.
- Gemeinhardt, Peter. “Das Erbe der Alten Kirche. Gott und Christus (Marburger Artikel 1-3).” In Schäufele, Wolf-Friedrich ed. *Die Marburger Artikel als Zeugnis der Einheit*.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2012 (= *MAalsZE*): 69-102.
- Köhler, Walther ed.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Versuch einer Rekonstruktion*. Leipzig: M.Heinsius Nachfolger Eger & Sievers, 1929.
- Lexutt, Athina. “Das Abendmahl. Die lutherische Position (Marburger Artikel 15).” In Schäufele, Wolf-Friedrich ed. *Die Marburger Artikel als Zeugnis der Einheit*.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2012 (= *MAalsZE*): 147-170.
- Luther, Martin.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Vol. 30.III. Weimar Ausgabe. Weimar: H. Bohlau, 1883-. (= *WA*)

- May, Gerhard ed.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70.
- Melanchthon, Philipp. *Corpus Reformatorum: Philippi Melancthon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Carl Gottlieb Bretschneider and Heinrich Ernst Bindseil. Halle, Braunschweig: 1834-1860. (= CR)
- Neuser, Wilhelm H. *Die Abendmahlslehre Melancthonis in ihr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1519-1530)*. Neukirche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68.
- Quere, Ralph Walter. *Melancthon's Christum cognoscere: Christ's efficacious presence in the Eucharistic Theology of Melancthon*. (Bibliotheca Humanistica & Reformatorica Vol. XXII). Nieuwkoop: B. De Graaf, 1977.
- Schäufele, Wolf-Friedrich ed. *Die Marburger Artikel als Zeugnis der Einheit*.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2012. (= MAalsZE)
- _____. "Bündnis und Bekenntnis. Die Marburger Artikel in ihrem dreifachen historischen Kontext." In *Die Marburger Artikel als Zeugnis der Einheit*. ed. Schäufele, Wolf-Friedrich.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2012 (= MAalsZE): 43-67.
- Scheible, Heinz. *Melancthon. Vermittler der Reformation: Eine Biographie*. 2.Aufl. München: C.H.Beck, 2016.
- Selderhuis, Herman J. 신호섭 역. 『루터. 루터를 말하다』. 서울: 세움북스, 2016.
- Zwingli, Huldreich. *Huldreich Zwinglis Sämtliche Werke*. Vol. 6.2. Corpus Reformatorum 93.2. ed. Emil Egli et al. Zürich: Verlag Berichthaus, 1968. (= CR 93.2)
- 류성민. "마부르크 조항 연구: 마부르크 조항 번역과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 비교." 『개혁과 부흥』 제22권(2018), 7-38.

[Abstract]**Zwingli and Melanchthon. Focusing on their individual meeting of the Marburg Conference**

Seong Min Ryu

(ACTS, Research Fellow, Church History)

Zwingli and Melanchthon speak at their individual meeting on the first day of the Marburg conference. This article attempts to guess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through Zwingli's minute and Melanchthon's reports. The topics discussed in the meeting are the understanding of the Word, the question of original sin, the problem of Christology, and most importantly the views of the Eucharist. The Wittenberg has severely criticized the Reformed for linking their views with heresy. But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has revealed that there was a considerable approach to the fundamental doctrinal problem. In particular, from the standpoint of the subject of the Eucharist, Melanchthon reveals that his view is closer to Zwingli than Luther. And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lso coincides. However, they disagreed with their views on the physical presence of Christ in the Eucharist and ended the talks. This failure was both a theological result and a political result. However, this meeting revealed that both sides of the Reformation erased the misconception that there were great theological differences, and that they had a great commonality among them.

Key Words: Marburg Conference, Luther, Zwingli, Melanchthon, Eucharistic Controversy, Principle of the interpretation of Bible

